"불교사원 임종간호 역할했다"

임종복지학 국내 첫 소개…김영희교수 일본서 논문발표

국내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임종복지학을 다룬 논문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됐다.

동남보건전문대 김영희교수가 지난 93년 일본 숙덕대(淑德大)대학원 사회복지학연구과에서 석사논문으로 취득한 「임종간호의 현황과 과제」란 이 논문은 불교의 임종간호(臨終看護:Terminal Care 또는 Hospice)의 역사와, 일본 불교계의 임종복지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불교계는 물론 기독교·천주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임종복지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촉구하는 선행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수는 논문을 통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대단히 크다"며, "서구에서 발달한 임종간호는 그 대부분이 기독교 관계의 의료시설에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불교에서의 임종간호의 역사도 대단히 깊다"고 주장했다.

◇김영희교수

김교수는 임종간호를 "치유가능성이 없는, 말기상태(최후의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있는 임사환자(臨死患者)들에 대한 포괄적인 간호"라고 정의하면서, 산스크리트어 '비하라(Vihara)'가 임종간호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비하라'는 '사원'이란 의미와 동시에 '안식(安息)의 장(場)', '병원'이란 뜻을 지닌 것으로, 사원은 불법(佛法)을 전하는 동시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 안식을 얻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하는 병원이나 진료소 역할을 했다는 것.

이 사원에는 의사를 겸한 승의(僧醫)라던가 간병비구, 간병비구니가 활약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가톨릭 수도원의 수녀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인도최고의 불교사원인 기원정사(祇園精舍)에 '무상원(無常院)'이 있어 중병인은 이곳으로 옮겨져 간병을 받았다"고 말하고, "무상원은 중병각(重病閣), 열반당(涅槃堂)등으로 불리면서 임종간호를 위한 중병간동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일본 불교계는 현재 터미날 케어, 일명 비하라운동이 불교재생운동의 하나로서 조용한 열풍을 몰아오고있다"며, "이것은 현재 '장례식 불교'라고 하는 일본불교를 반성하며 사회적 실천을 통한 불교복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지난 86년 초종파적으로 모인 60여명의 젊은 승려들이 경도불교청년회를 조직, 21세기에 일본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승려, 의료인, 재가불자와 함께 「불교에 있어서의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심포지움」을 연 것이 일본 비하라운동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하고, "한국불교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전자공학, 대리모 문제, 시험관 아기, 뇌사문제 등의 생명윤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소도의례, 신라불교 뿌리

송화섭 교수 주장

신라 불교수용의 신앙기반이 소도의례(蘇塗儀禮)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고대사연구회(회장 이문기)가 지난 14~15일 국립대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 「삼한의 사회와 문화」주제의 세미나에서 송화섭교수(원광대)가 「삼한시대 종교의례의 성격」을 통해 발표한 것.

송교수는 논문을 통해 "최치원은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를 통해 신라가 삼국이 정립하면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신라 불교수용의 신앙기반이 소도의례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도가 불교신앙의 재래신앙적 기반이었음은 마한정통론이 강력하게 개진되던 조선후기 한치윤의 〈해동역사〉 석교조(釋敎條)에서 진수의 〈삼국지〉 소도내용을 빌어 "이것은 동방 불교의 조짐이다(此東方釋敎之兆也)"를 강조하면서 최치원의 지증대사비문을 인용하는데서 더욱 명료해진다는 것.

송교수는 "소도가 불교수용 이전까지 삼한의 종교를 대표하였으나 삼국의 건국주체들이 수용한 중국의 종묘제도가 제사체계로 정착, 대체되면서 민간신앙으로 전락해 갔다"고 분석했다.

송교수는 "지금까지 불교수용이전의 재래종교는 대체로 토착신앙이나 민속신앙이란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했으나, 민간신앙이 아닌 '고대종교(古代宗敎)'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시각과 인식이 새롭게 요청된다"고 말했다.

경을 보되 보지 말라는 뜻은?

문 공부하다가 의정이 생겨서 경전을 펼쳐들게 됩니다만 그때마다 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서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인천시 서구 기좌1동·양은경)

답 '하지말라'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누가 경을 보지말라고 했던가요. 경을 보되 보지말라, 말하자면 문자에 얽매여 표현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경전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뜻을 참구하지 않고 문자를 연구하니까 보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의정이 난다면 경을 보고 답을 찾아내려 하지 말고, 남에게 물어서 알고자 하지도 말고, 사량분별심으로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도 말고 '의정이 일어난 그 자리에 답도 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으며 거기에 맡기세요. 의정이 난다해서 답을 구하려고 억지로 애쓰고 끄달린다고 해서 시원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의정을 일으킨 것도 나이니 답도 거기서 나옵니다.

다. 어떤 장기에 고장이 나면 전체가 병들어 쓰러집니다. 한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 전체가 흔들거리고, 한 지역이 결딴나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와 집니다. 어찌 둘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한마음 주인공!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육신, 나와 일체 만물, 중생과 부처가 둘 아닌 도리를 철두철명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몸이 아프다하면 그것도 한마음 주인공 도리에서 나온 것이니 나온 자리에 되 놓고 돌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믿음, 참으로 그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온 자리에 되놓는 도리가 성립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도,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네 몸뚱이 네가 안아프게 해서 끌고 다녀라'하고 놓으세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체험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참선이기도 합니다.

병도 전생의 업 탓입니까?

문 나의 전생을 알려면 현세의 나를 볼 것이며 내세의 나를 보려면 현세의 나를 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현직 교사인데 늘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어떤 업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요.

(강원 강릉시 내곡동·이일균)

답 일체 만물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며 돌아가는 까닭에 실은 병 붙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붙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것이 경전에도 나와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다', '이건 전생의 업보일 것이다'라는 생각부터 내려 놓으시지요. 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찰나찰나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근본 주체가 있는 줄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다 매고 '네가 만든 몸뚱이니 심부름 잘 하게끔 건강하게 끌고 가려므나'하고 맡겨 놓으세요.

이 몸과 정신, 이 마음내는 것과 법이 둘이 아니요 법신과 화신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일체가 한 군데서 나오니 나온 곳에다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빈 맷돌 돌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유마힐 거사께서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 소우주, 소혹성부터 돌아보고 발견해야 합니다. 내 몸 속에 수십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생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중생과 부처를 둘로 본다면 제 마음과 몸 속의 중생들을 다르게 보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과를 피할 수 없는지요

문 불락인과(不落因果), 불매인과(不昧因果)에 대해 묻습니다. 법력이 높으신 도인들도 인과에 매이지 않을 뿐 인과를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업이 녹는 도리와는 모순이 아닐는지요.

(경기 군포시 산본1동 장동주)

답 이건 아니다, 저것은 맞는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색과 공이 둘이냐 둘아니냐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불매라고 했는가. 모든 것이 날날이 한발 떼고 놓고, 떼고 놓고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으니 다가온다, 아니온다, 불락이다, 불매다 고정되게 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생활 자체로 여여함이 불매인 것이지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면서 생사도 뛰어 넘는 것이 바로 불매이겠지요. 그래서 고정되게 불락이다 한마디 잘못 해가지고 여우의 몸을 쓰고 5백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이들은 5백년이 1초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우 몸으로 살든, 늑대 몸으로 살든, 구데기 몸으로 살든 선지식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했듯이 높고 낮음이 따로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메뚜기 발도 내 발이요 인간의 발들도 전부 내 발이요, 네 아픔 내 아픔, 네 몸 내 몸, 네 자리 내 자리가 모두 한 자리이기에 그 경지에서야 천상천하유아독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락이다, 불매다 라고 아귀를 짓지 마세요. 그것마저 다 내려 놓으십시요.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그 가운데 불락이다, 불매다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해방후 불교사연표 '한눈에'

내용방대 고증정확…학술연구 귀중자료

승가대 김상영교수 기획

해방이후 94년까지 현대 불교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소장 홍선) 김상영교수(불교학과)의 기획으로 편집된 〈한국불교 현대사 일지〉가 22일 논집 〈승가〉 별책부록으로 발간된다.

광복이후 현대 불교사를 한국불교총람, 불교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모아 정리 편집한 330쪽 분량의 이 책자는 한국불교총람의 「한국불교사 연표」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와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정리되고 있어 불교사학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내에는 정신문화연구원의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중 「한국사 연표」가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불교사를 취급했으나 빠진 기록이 많았으며, 불교총람의 연표도 잘못된 기재와 중복기재, 출전근거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일지 발간을 기획, 편집을 진행시켜 온 김상영교수는 "단행본으로 나온 일본의 〈불교사 연표〉를 보고 이 자료집을 기획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짜순으로 종단, 교육·포교, 학술·문화, 인물·기타 항목의 내용을 정확한 일자를 비교하며 쉽게 볼 수 있게끔 편집된 이 자료집은 '교육·포교' 항목에서 해외불교 기사까지 다루고 있으며, '학술·문화' 항목에서는 문화재, 예술, 학술세미나, 학술인물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60년 대한불교 창간 이전의 자료는 동아·조선일보의 자료가 빈약해 애를 먹었다"는 전영준연구원은 "이 자료집이 나올 경우 국내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지닌 현대불교사 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서 의견수렴 키로

설법교안 발행 세미나

(가칭) 설법교안 발행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10일 녹수청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법교안의 편집방향에 대해 △참선수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행방편수용 △법회활성화 도모, 전국사찰의 월1회 통일적 법회 개최유도 등을 위해 '신행혁신 운동' '21세기 포교청사진 포교토론회'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설법교안」은 50~1백쪽으로, 발행부수는 3천부 예정이며 3월쯤 공청회를 열어 포교사, 편집담당자 총무원 부국장 스님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독문의:737-8881

"가우다빠따, 「中道說」근거 「不生說」확립"

문을식씨 박사논문서

불교의 '공(空) 사상'을 확립했던 용수의 중도설(中道說)과 인도 베단타학파의 논사 가우다빠다의 불생설(不生說)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을식씨는 동국대대학원 인도철학과 94년도 후반기 박사학위 논문 「가우다빠다의 불생설과 용수의 중도설: 중도설에 비추어 본 불생설」을 통해 "가우다빠다는 불교의 전문적 용어, 비유, 논법과 어구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시킨 형태로 수용해 불생설을 천명함으로써 불이일원론(不二一元論)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을식씨

가우다빠다(640?~690?)가 인도 정통철학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우빠니샤드의 근본정신으로의 환원을 위해 내부 학파들이 아닌 대승불교라는 외부사상을 적극 참고하게 됐다는 것이 문씨의 설명. 문씨는 "가우다빠다가 용수(龍樹, 150~250)의 중도설만이 아니라 세친의 유식설도 도입하여 현상세계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 즉 현상은 본체가 마야에 생겨난 거짓된 것이며 현상과 본체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불생(不生)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우다빠다는 용수 등 불교논사들의 은혜를 입어 브라흐마-수트라가 봉착한 일원론과 인중유과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인과율과 현상세계의 실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현실생활에서의 모든 노력 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이것은 용수나 세친 등으로부터 차용한 사고의 틀을 자신의 주의(主義)에 무리하게 적용해 빚어진 결과라는 것.

경천사탑 보존작업 착수

국비5억투입, 균열부위등 보수

경복궁내 경천사지10층석탑(국보 제86호)의 보존처리작업이 본격화 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탑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비 5억원을 투입, 다음달부터 탑신을 해체하여 정밀 실측하고 석재표면의 시멘트제거, 오염물세척, 균열부위접착 등 복원작업과 함께 보존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훼손상태가 심한 탑골공원내 원각사지10층석탑(국보2호)에 대한 예산은 보존처리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이후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고속도 공사관계로

조탑리 고분군 훼손우려

대구~안동간 중앙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건설되는 인터체인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보물로 지정된 조탑리5층전탑과 고분군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문화재관리국 지도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조탑리일대 현장조사에서 현재 설계된 진입도로 노선은 탑은 물론 고분군 등 매장문화재 파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형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8월말 완공예정인 공기차질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당초 건설부가 설계한 인터체인지와 진입도로는 63년 보물 제57호로 지정된 조탑리5층전탑과 불과 14m 떨어져 있어 설계변경 없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차량진입 등으로 탑이 붕괴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대 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종교학	원전강독 I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